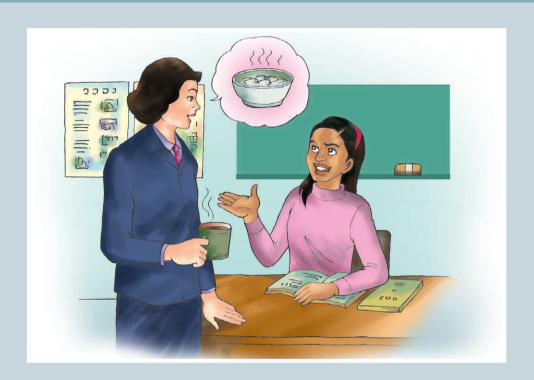


9. 떡국을 끓일 줄 알아요?



대화

자넷: 모레가 설인데 선생님은 시댁에 안 가세요?

선생님: 내일 밤 시댁에 가서 설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요. 그리고 오후에

친정에 갈 거예요. 자넷 씨는요?

자넷: 저희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서 다른 가족들이 저희 집에 모여요

선생님: 차례 준비는 누가 해요?

자넷: 형님하고 제가 같이 할 거예요. 설날 아침에는 일어나서 떡국만

끓이면 돼요

선생님: 어머. 자넷 떡국을 끓일 줄 알아요?

자넷: 물론이지요. 어머님께 배웠어요.

시댁 친정 모시다 저희 모이다 준비 형님 아직 물론이지요



명절 풍습

산소 설빔 조상 세배 세뱃돈 까치설날 색동저고리 윷놀이

- ※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봅시다.
 - (1) 설날에 세배를 하면 ()을 받아요.
 - (2) 설날에 입는 색동저고리를 ()이라고 해요.
 - (3) 설날에는 설날 노래를 부르고, 모여서 ()도 해요.

설날 노래

※ 설날에 부르는 노래를 불러 봅시다.



(1) 자기의 고향에서 명절에 부르던 노래를 소개해 봅시다.



문법1 -아서 / 어서

- · 자넷 씨는 아침 여섯 시에 일어**나서** 아침을 준비합니다.
- · 저 학교를 지**나서** 내려 주세요.
- · 너무 많이 먹**어서** 배가 불러요.

연습 1 그림을 보고 [보기]와 같이 써 봅시다.

[보기]	(마닷에 나가다	빨래를 하다) ⇒	마단에	나가서 빨래를	채요
1エノロ				의기의 크네크	

(1)	(계란을 삶다, 먹다)
	⇒
(2)	(친구를 만나다, 시장에 가다)
	\Rightarrow
(3)	(과일을 씻다, 접시에 담다)
	\Rightarrow

연습 2. [보기]와 부분에 '-아서/어서'를 넣어서 써 봅시다.

ı	보기	1	기치	르	단기	٠М	내기	자고여	넣어	두었어	lQ.
ı		J	^			~	0	\circ \pm \circ	ᅵᇹ╵	$I \perp M M$	ΙЩ.

(1)	한국어 공부를 해요.
(2)	세수를 해요.
(3)	함께 곳워에 갔어요

문법2 -(으)ㄹ줄

- · 미영 씨는 만두를 **만들 줄** 알아요.
- · 자넷 씨는 한글을 **읽을 줄** 알아요.
- 수미는 수영을 할 줄 알아요.

연습 1. [보기]와 같이 '-(으)ㄹ 줄 알다.'를 이용하여 써 봅시다.

[보기] 피아노를 치다. ⇒ 피아노를 칠 줄 알아요.

(1) 된장찌개를 끓이다	
⇒	
(2) 송편을 빚다.	
⇒	
(3) 뜨개질을 하다.	
\rightarrow	

연습 2. 다음의 두 사람은 무엇을 할 줄 아는지, 또 무엇을 할 줄 모르는지 [보기]와 같이 말해 봅시다.

	나	남편
운전을 하다	X	0
배드민턴을 치다	0	X

[보기]	가: 운전을 할 줄 알아요?
	나: 아니요. 저는 운전을 할 줄 몰라요.

(1)			
(2)			
(3)			





말하기 여러분 고향의 명절에 대해서 친구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.

자넷: 수파펀, 태국에는 어떤 명절이 있어요?

수파펀: 송끄란이 있어요.

자넷: 송끄란에는 무엇을 해요?

수파펀: 송끄란은 1년 중 가장 더운 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물을

뿌려 줘요.

자넷: 수파펀도 물을 뿌린 적이 있어요?

수파펀: 그럼요. 송끄란에는 저도 다른 사람에게 물을 뿌렸어요.





	명 절	명절에 하는 일
태국	송끄란	다른 사람한테 물을 뿌려 준다.
 한 국		

읽기

※ 여러분은 차례상을 차릴 줄 아세요? 다음은 여러분과 같은 외국인 주부가 차례상 차리기를 배운 이야기를 쓴 기사입니다. 읽어 봅시다.

충북 옥천 외국인 주부들 추석 차례상 차리기

국내로 시집온 외국인 주부들이 미리 추석 차례상을 차렸다. 충북 옥천의 한 국어학당에서는 외국인 주부 30명에게 차례상 차리기를 가르쳤다. 이날 차례상 차리기를 배운 주부는 베트남, 필리핀, 태국, 캄보디아 등에서 온 사람들이다.

이 행사에는 충북 옥천에 살고 있는 한국 주부 열 명이 선생님이 되었다. 이들은 맛있는 송편 빚기와 전 부치기를 가르쳐 주었으며, 함께 차례상도 차렸다.

필리핀에서 온 엘레나(38. 옥천읍 마암리) 씨는 "한국에 시집온 지 4년이 넘었지만 차례상 차리기는 너무 어려웠어요. 오늘 배운 것으로 올 추석 차례 음식을 직접 준비할 거예요."라고 하며 즐거워했다.

태국에서 온 레티시아(27. 옥천읍 서대리) 씨도 "송편을 빚기가 어려웠어요. 하지만 이제 가족들과 즐겁게 송편을 빚을 수 있어서 좋아요."라고 이야기했다. (옥천=한국뉴스) 박철수

- 1. 위의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.
 - (1) 외국인 주부들은 한국어학당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?
 - (2) 누가 외국인 주부를 가르쳤습니까?
- 2.여러분들은 차례상 차리기 외에 무엇을 더 배우고 싶습니까?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말해 봅시다.

주부 국내 시집오다 미리 올 직접